

서울YWCA

202401 | Vol.628
02

“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대 캠페인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중받고
환영받았던 기억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자연과의 심오한 관계를 탐구하도록 초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조
아
라

미디어 모니터링

험오를 보며
웃을 수는 없다

예술과 여성

꽃과 사막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

나의 소비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요?



재활용도 좋고, 나눔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리는 핫딜 정보와
저렴한 가격, 휘황찬란한 광고가 현혹하는 요즘,
소비를 줄이기란 쉽지 않은데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것 저것 사들였다면
새해부터는 무언가를 사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잠시 생각해 보고 소비합시다.

충동 구매는 그만! 가치 소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p>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p> 	<p>필요한 제품을 중고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p> 	<p>가격이 싸다고 해서 대량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은 지양한다</p> 
<p>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더 담는 것은 지양한다</p> 	<p>저품질의 저렴한 제품보다 고품질의 A/S가 가능한 제품인지 따져 본다</p> 	<p>비슷한 제품을 가격으로만 비교하지 말고 친환경 인증 제품인지 공정무역 상품인지 등도 살펴본다</p>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YWCA

2024년 1·2월호 | 628호

1월 공동기도

창조주 하나님, 사람에게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새날을 살게 하소서.
2024년이라 부르는 한 해의 첫 달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걸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2월 공동기도

생명의 하나님, 꿈꿨던 언 땅 아래 당신께서 숨겨두신
지구의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다시 봄을 기대하며 성실하고 치열하게 준비하는 자연인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역시 오늘이 춥고 암담하고 힘들다고, 당신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며 버티게 하소서. 아멘

- 2 **즐거운 불편운동**
나의 소비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요?
- 4 **환대 캠페인**
수용을 넘어 환대로
- 6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①**
'기후 지옥' 앞에 선 인류에게 보내는 '생명'으로의 초대
- 8 **현장 속으로**
2023 기독교민아카데미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 12 **Y샷터**
서울YWCA 청년지도자를 소개합니다
- 13 **미디어 모니터링**
힘을 보며 웃을 수는 없다 <개그콘서트 2>
- 14 **예술과 여성**
꽃과 사막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
- 16 **서울Y 소식**
11·12월 뉴스
1·2월 행사 안내
1·2월 캘린더
- 22 **라운드 테이블**
지금, 대학에는 '언니들'이 필요하다
- 23 **알림터**
- 24 **후원 소식**
- 28 **총회 특집**
정기총회 순서
정관 변경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조아라, 민주화운동의 선구자

<서울YWCA> 2024년 1·2월호 통권 제628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4년 1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배수주 심주리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
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
seoulywca



blog.naver.com/
ywca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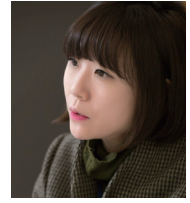


검색창에
서울YWCA



검색창에
서울YWCA

수용을 넘어 환대로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관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냉동시켜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해동시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할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돌아가서는 우리의 나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예멘 난민분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018년 머나먼 예멘에서 제주도까지 날아온 이방인 대부분을 품어 주었습니다. 낯선 이 집에 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제게 진정한 의미의 ‘환대’에 대해 생각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쫓기고 쫓겨 우리 집까지 피신한 이방인을 진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존중받고 환영받았던 기억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 중 하나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구호현장(2017)을 찾은 신혜인 공보관(가운데), 맨 왼쪽은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고 한국인이냐는 질문보다 일본인 혹은 중국인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던 시절, 저는 한국인은 물론, 동아시아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영국의 소도시에 살았습니다. 어린 날의 저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남들과 우리나라에 대해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중받고 환영받았던 기억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배제당한 기억이 더 많았다면,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다름을 바탕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 접하지 못한 낯선 존재를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이질적이고 다른 존재들입니다.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도 그랬습니다.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 된 그분들 역시 한국인을 두려워하며 숨죽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낯선 존재였던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이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 무사히 적응하여 한국인 속에 섞여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고 섞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다름을 바탕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여전히 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며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촘촘히 연결되어있기에, 예멘,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 팔레

스타인과 같은 머나먼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대문을 걸어 잠근다고 하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힘을 합쳐 화재를 진화해야만 우리 집도 안전해집니다. 문을 활짝 열고 교류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

진정한 환대는 상대방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니?”라고 질문하여 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나고 자란 우리나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유로 머나먼 그곳에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여 줄 때, 진정한 환대와 교류가 시작될 것입니다.

환대의 과정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순히 ‘한국인’으로만 정의될 수 없듯 난민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을 하나의 거대한 인구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각기 다른 인격과 개성,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딸이자 아들, 누나이자 남동생이며 각기 다른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개인입니다. 고유한 개성을 무시하고 모든 개인을 이들이 속한 집단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누구도 서로를 이해할 수도, 포용할 수도, 환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르기 때문에 배려받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받은 환대와 배려를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 갚을 때, 그 환대가 사람에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확장될 때, 우리 사회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선 진정한 환대와 화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후위기시대, 생태정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성서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찾아봅니다

‘기후 지옥’ 앞에 선 인류에게 보내는 ‘생명’으로의 초대



최광선
덕신교회 담임목사

일치의 경험

몇 해 전, 캐나다 구엘프에 있는 한 영성 센터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을 이른 아침에 걸었습니다. 여명의 시간 그 들판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전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무의 실루엣과 새 소리, 바람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창조의 신비를 알렸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늑대라 여겨지는 큰 개를 닮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동물과 저 사이에 눈빛을 교차하는 뜻깊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다른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그 동물과 저 사이의 연결만이 존재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들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조차 설렘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대지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새들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며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사슴 한 쌍이 낮은 이의 발걸음에 놀라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구엘프의 들녘을 걸으며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슴과 들짐승과 함께 들녘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 경험을 일찍이 신비가들이 말한 일치의 경험이라 해석했습니다.

환경 운동의 모세라고 불리는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1887-1948)는 한때 사슴과 산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를 사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방아쇠를 당긴 순간, 죽어가는 어미 늑대의 푸른 눈빛을 경험한 후 관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산, 사슴, 늑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더 넓은 진리와 공명합니다. 우리가 코요테가 위험한 동물이라며 구엘프의 들녘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사슴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농토와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농토와 산림이 파괴되면 사슴도 살 수 없겠지요. 결국 사람도 사슴도 코요테도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구엘프의 들녘에서 생명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인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지구 파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현재 우리 시대에 가장 위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구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도교 역사 이래, 사이버 종말론자들은 늘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환경 재앙과 관련된 종말을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이자 전 하버드대 교수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sborne Wilson, 1929-2021)은 연간 매년 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폴 엘리히(Paul R. Ehrlich) 스탠포드 명예교수는 현재 산업문명으로 가속화되는 생명파괴 현상이 핵전쟁으로 발생할 경험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인간이 지구를 죽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저명한 생태사상가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는 “사람의 영광이 지구의 황폐화를 낳았고, 지구의 황폐화는 인간의 미래”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는 창조물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롬 1:20)을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역이며 신성모독입니다.

생명공동체에 대한 부활의 희망

우리는 기후지옥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지난 7월 “지구 온난화 시대(The era of global warming)는 끝났다. 지구가 끓는 시대(The era of global boiling)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간에 우리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준 나사렛 예수를 떠올립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나사렛과 갈릴리를 여행하며 광야와 산,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쳐 보였습니다. 예수는 마을과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으나 중요한 가르침들은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녘에서,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 5:1, 13:1; 14:13-21; 막 4:1; 6:31-44; 눅 9:10-17; 요 6:1-13 등 참조). 예수의 하나님

우리는 기후지옥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간에 우리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준

나사렛 예수를 떠올립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과 생태적 비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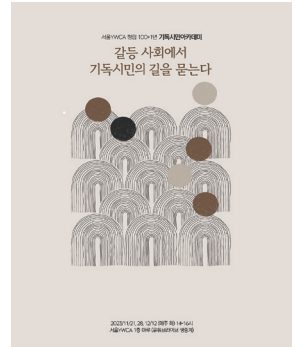
나라 비전과 생태적 비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생명공동체에 대한 부활의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글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자연과의 심오한 관계를 탐구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생태적 시각으로 읽으며 생태위기를 불러일으킨 인간의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세계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여전히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명멸절과 절망의 시기에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요 북극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

최광선 박사는 생태중심도시 순천에 있는 덕신교회 담임목사다. 그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자연은 벗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경이라 말한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아파하며 예수께 길을 묻는 구도자이기도 하다. 토론토대학교 신학부에서 생태영성을 전공(Ph.D)했다. 공저로 「지구 정원사 예수」가 있다.

갈등 사회에서 기독시민의 길을 묻는다 2023 기독시민아카데미

서울Y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기독시민아카데미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화요일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갈등 사회에서 기독시민의 길을 묻는다’로, 다양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크리스천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독시민들이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 서울Y 회관 마루에서 현장 강의와 함께 유튜브라이브로도 생중계된 2023 기독시민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강 사유하고 성찰하는 성숙한 기독시민

김선욱 교수_ 송실대학교 철학



“사유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 – 한나 아렌트

20세기 가장 위대한 여성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특징으로 ‘선동’과 ‘공포’를 꼽는다. 공포가 마음속에 번지면 시민 개인의 사고가 얼어붙고, 권력자는 손쉽게 복종을 얻을 수 있다. 21세기에도 전체주의는 등장할 수 있다. 21세기 전체주의의 두 가지 기술은 ‘이데올로기’와 ‘공포’다. 금전만능주의, 스카이크래쉬, 혐오, 분노 등이 판치는 사회 분위기는 다시 전체주의를 불러올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백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생각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의했다. 악이란, 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히만처럼 악행을 저지르지도 모를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시민’은 삶의 공동체 속에서 악행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다. 사유하는 주체는 인간, 즉 ‘시민’이 모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다.

2강 백래시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

신경아 교수_ 한림대학교 사회학



“백래시 (backlash · 반동)”

‘민주주의 성장이나 진보적 물결에 대한 반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젠더든, 인종이든, 계급이든, 지역이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제기하는 정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반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한국형 백래시’는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분노를 투사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현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경 무용론’ ‘남성 역차별론’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형 백래시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확산의 계기가 ‘정치권의 동원’에 있다는 것과 ‘선제적’이라는 점이다. 여성운동의 성취가 일정 수준 달성된 상황에서 등장하는 ‘교정적 백래시’와 달리 ‘선제적 백래시’는 여성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에 미리 제압하려는 시도다. 한국은 어떤 지표를 보아도 성평등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나라인데도 말이다.

여성과 남성이 젠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젠더갈등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 백래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사회 존속과 출생률 제고의 해법일 것이다.

3강 기독교인을 위한 정치학

박상훈 연구위원_ 국회미래연구원



정치와 민주주의를 신의 선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도 민주주의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며, 좋은 정치를 찾아 헤매는 시민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찮은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팬덤 정치’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 양극화의 연장선에서 출현한 대중정치의 한 형태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진영에서 누군가를 내쫓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지나친 성과주의, 군사주의 언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현장도 팬덤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팬덤 정치 또한 민주적 정치 현상이다. 민주주의도 단점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결국, 갈등을 잘 다루는 것이 민주적 실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린 민주주의”다. 좋은 정치를 향한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한 결과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다음 세대의 사회 속에서 발현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함께 걸으면 좋겠다.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서울Y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각자도생으로 피폐해진 인간과 지구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성서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성찰하고, 인간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기독교적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사유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4회 차의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강좌를 진행했다. 송진순 교수(이화여대 외래교수·대학교회 부목사)와 함께 30명의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

1회차

10월 25일

서울Y와 생태여성주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태계가 고통 받는 가운데 인간만 구원받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질문해야 한다. 책임(responsibility)이란 응답(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으로, '그리스도인 됨'이란 파송 받은 존재로서 책임을 가지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서울Y가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추진해온 모든 활동은 생태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YWCA 운동인 기후위기대응, 성평등, 평화운동을 결합하는 이론 작업이자 실천의 토대이다.

2회차

11월 1일

생태여성주의와 세상 읽기

기독교인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부장제(남성중심), 이분법적 세계관, 위계질서, 인간중심주의, 자본주의의 성장지향과 개발주의 등 인류에게 익숙한 삶의 가치에 생태여성주의 관점으로 균열을 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던 존재들의 시각에서 그동안 보편적,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되던 인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인식의 토대로 삼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지음

「렛 어스 드림」
프란치스코 교황,
오스틴 아이버레이 지음

「찬미받으소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간

「그린 엑스더스」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음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입니다」
유경춘 지음

「모두를 위한 생명등 공부」
이나영, 최윤정, 안재희,
한채윤, 김소라, 김수아 지음

생태여성주의란?

생태여성주의는 근대 계몽주의 이후 가부장적인 산업 문명 속에서 자연이 철저히 대상화되며 착취와 파괴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성주의가 여성만의 권리 주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의 실천이듯, 생태여성주의는 성, 세대, 종, 지역 등 범위를 넓힌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에 대한 억압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들여다보고,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고 실천하는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와 더불어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기를 강조한다.

3회차

11월 15일

생태여성주의와 생명 읽기

생명 살림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차별과 경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기후, 먹거리, 동물, 반려지구의 관점으로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했다. 부의 불평등에 비례하는 기후 불평등, 인간의 안전을 위해 비인간존재의 생명을 착취하는 동물실험 등 생명을 생명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의 억압과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기후위기가 하나의 불평등과 부정의가 아니듯, 종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경제적차별 등 모든 자본주의 문명에서의 차별과 억압은 연결되어 있다. 생태여성주의적 인식은 이러한 다양한 차별의 연결고리를 알아차리고, 숨겨진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다.

4회차

11월 22일

생태여성주의와 욕망 읽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속성이다. 과시, 인정, 성장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사회에는 경쟁과 각자도생의 삶을 추구하기에 타인과의 공존, 돌봄, 환대가 들어 설 공간이 없다. '나의 욕망은 나의 것인가 타인의 것인가.' 생태여성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내가 밭 딛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초청한다. 절대 금욕적 삶, 욕망을 제거한 삶, 사회와 단절된 삶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욕망을 들여다보며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와 삶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자기 돌봄과 지구 돌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회적 영성의 마중물이다. 네 번의 만남을 통해 참가자들은 생태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나와 서울Y, 세상, 생명, 욕망을 읽으며 생태여성주의 감수성을 일깨웠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통해 나를 바꾸고 타인과 관계 맺는 실천적 삶을 다짐했다. 모든 생명과 존재가 평화로운 세상, 앞으로도 서울Y 활동가와 회원인 우리 기독교여성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 정리_김예리 여성운동팀 부장

서울YWCA 청년지도자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Y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성장한 청년들이 Y-틴을 위해 뭉쳤다.
‘청소년평화아카데미’ 운영진으로, 서울Y 청년지도자 활동을 시작한 것!
Y를 통해 평화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청년지도자를 소개한다.

청소년평화아카데미
한반도 분단,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 개념의 평화 콘텐츠를
기획·개발, 인간의 존엄과 평화 이슈를
청소년들과 논하며 평등을 넘어
평화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 적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도 사라진 상태

김진서 (20세)

고교 시절 Y-틴으로 처음 서울Y를 만났고, 감사하게도 2학년 때에는 이화여고 Y-틴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지금까지 Y 활동을 하면서 크게 ‘평화’,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었고, 특히 청소년평화아카데미 강의를 준비하며 제가 기독교적 가치로 품고 있는 ‘평화통일’의 소명과 비전을 정리하고 배움과 나눔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Y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윤 (23세)

소리모아(청년연합활동동아리) 활동(2022년)을 통해 Y를 알게 되었고, 소리모아 활동은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지난해 소리모아 회장 활동과 함께 평화아카데미 운영진도 맡게 되었는데요. 특수교육 전공자로서 저는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보람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지킴이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채 (25세)

경제금융봉사동아리 씽크머니 회장(2022년)으로, 청소년평화아카데미 운영진(2023년)으로 서울Y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강점인 금융경제지식을 평화와 접목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끼친 경제적 영향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를 주제로 청소년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관점을 키우며 성장하도록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



혐오를 보며 웃을 수는 없다

돌아온 <개그콘서트 시즌2>, 여전히 만연한 혐오와 차별

“야, 결혼기념일이 대수야, 우리 아들 돈 빨아먹으려고.”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하여간 재수 없어.”

‘야심 차게’ 준비했다던 ‘개그콘서트 시즌2’(개콘)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상태였다. 2020년 폐지 당시에도 개콘은 인종차별, 외모 비하, 여성 혐오 등 퇴행적인 차별과 혐오 개그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폐지 3년 4개월 만에, 올해 11월 12일 방송을 시작으로 부활한 개콘은, 마치 보란 듯이 더욱 퇴행적인 개그와 차별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Y 여성운동팀은 개콘 속 차별적인 장면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별적인 장면들에 대해 방송 심의를 신청했다.



가장 문제 코너는, ‘니통의 인간극장’이었다.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 며느리 ‘니통’이 나오는 코너로, 시어

머니는 시종일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내내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11월 19일자 방송에서는 시어머니가 네일아트를 한 니통에게 “우리 아들 돈으로 헛짓을 하고 있어”, “너 깎뚜기 뭐로 담갔어? 내가 망고로 쳐 담그지 말라 그랬지?”, “내가 된장찌개에 스리라차 소스 쳐넣지 말라고 그랬지!” 등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그것이 개그코드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발음을 조롱하듯 따라하고 희화화하며, 그들을 대상화하고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한 결혼 만세’ 코너는 결혼에 대한 장점을 늘어놓으며 결혼

을 권하는 내용이 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한 남성 개그맨이 “결혼하면 좋다. 나만의 내조의 여왕이 생



긴다. 백화점에 갔는데, 카드를 꺼내서 옷도, 신발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준다. 그게 내 돈이다.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내 돈의 여왕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는 개그코드가 사용되고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오직 남성뿐이며 여성 배우자는 자신의 돈을 쓰면서 생색내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며, “아내 = 내조”라는 인식은 굉장히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잼민이’라는 어린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거나,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 난무하기도 했다. ‘데프콘 어때요’ 코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처음 만나 소개팅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남성은 여성의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평가를 반복한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 ‘웃기다’는 전제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 전제는 바뀌었다.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려는 목소리들을 무시하고 퇴행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는 개그 프로그램 내의 ‘백래시’¹⁾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평등하고 차별 없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개그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정리_조혜원 여성운동팀 활동가

1) 진보적인 사회, 정치적 변화에 반발하는 심리나 행동

꽃과 사막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
1887. 11. 15-1986. 3. 6

미국 모더니즘의 어머니

커다란 캔버스에 꽉 채우듯 섬세하게, 때로는 추상적으로 그린 꽃 그림과 그가 살던 지역의 사막 풍경 그림으로 유명한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 모더니즘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는 70여 년의 작업기간 동안 그 어떤 미술운동이나 사조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근접 관찰을 통해 그린 커다란 꽃은 점차 흐르는 듯한 미묘한 울동성을 지닌 윤곽선과 투명하면서도 강렬한 색채의 독특한 추상적 형태로 발전했다.

그 이후 뉴멕시코에 거주하며 사막 풍경이나 사막에서 발견한 돌과 동물의 뼈나 두개골 등을 모티브로 식물, 조개껍질, 바위, 산 등을 첨가한 초현실적이면서 추상성을 띤 작업을 했다.

오키프 & 폴리처

조지아 오키프의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을 피해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고 그의 어머니 역시 1848년 헝가리 혁명으로 몰락해 미국으로 이주한 백작의 딸로서, 그들은 위스콘신주 선 프레리에서 낙농업을 하며 일곱 남매를 키웠다. 그중 둘째였던 오키프는 10살 때부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에는 1905년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해 1등을 차지한다. 그러나 1908년 아버지는 파산하고 어머니마저 결핵을 앓게 되자 더 이상 학비 원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업 일러스트레이터나 미술교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이 예술가로서 이름을 알릴만한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는데 그럴 때마다 미술대학 동창이며 훗날 여성참정권 운동가로 이름을 날리는 아니타 폴리처(Anita Politzer, 1894-1975)에게 편지를 쓰곤 했



「흰독말풀/하얀꽃 No.1」 1932. 121.9x101.6cm, 캔버스에 유채

다. 평소 오키프가 교사가 아니라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던 폴리처는 편지에 동봉된 오키프의 목탄추상화들을 들고 생면부지의 뉴욕 갤러리 291의 주인이자 유명 사진작가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1946)를 찾아간다. 스티글리츠는 “드디어 진정한 여성 화가가 나타났군”이라 평가하며 이듬해인 1917년 오키프의 그림들을 자신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후원자가 된다.

그 후 스티글리츠는 아내와 이혼하고, 23세의 나이 차에도 오키프와 1925년 결혼한다. 두 사람은 서로 예술적 영감을 주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스티글리츠는 오키프를 모델로 만 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으며, 오키프는 안정감 속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소더비 경매 570억 원 낙찰

꽃을 클로즈업한 모습으로 그린 오키프의 꽃 그림은 종종 그 구성 때문에 사람들은 에로틱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오키프 자신은 그런 성적인 해석에 대해 자신의 작품과 여성의 외음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를 혁명적 페미니스트로 여기기도 했으나 그는 자신의 작품의 제작과 예술적 성취는 페미니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성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로 불리길 원했다.

오키프의 유화 작품 「흰독말풀/하얀꽃 No.1」은 상당히 큰 캔버스 전체를 독말풀꽃 한 송이가 다 차지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꽃의 중심부를 부감 촬영하듯이 그려 흰색과 녹색의 단조로운 색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흰색이 두드러지며 강한 인상을 준다. 꽃의 세부적인 관찰이 돋보이며 꽃잎과 잎사귀의 물결치듯 흐르는 율동성은 작품에 생기를 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더비 경매에서 4440만 5000달러에(현재 한화 가치로 570억 원 정도) 낙찰된 바 있다.

오키프는 뉴멕시코의 산타페를 즐겨 찾아 그곳 풍광에서 영감을 받은 했는데 남편 사후 1949년에는 산타페에 정착해 흙으로 지은 단순한 집에서 지내면서 절제되고 고요하고 고독한 삶을 소중히 여겼다. 자연 속에서 광활한 대지를 보며 명상하듯 그림을 계속 그렸다. 사막에 나뉠구는 동물 뼈, 돌덩이, 지평선, 산 등 주변의 모든 것이 작품의 소재가 되면서 ‘추상환상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선보였다.

80세를 넘긴 그에게 어느 날 28세의 청년 예술가 존 해밀턴이 방문했고, 해밀턴이 오키프를 도우며 60세 이상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연인으로 지내다 오키프는 99세에 숨을 거두었다. 오키프는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준 해밀턴에게 막대한 상속을 남겼으며, 그의 유해는 유언대로 뉴멕시코의 고스트랜치 근처에 한 줌의 흙으로 뿌려졌다. 자연을 사랑했듯이 다시 대지로 돌아간 것이다. ♪

창립 101주년 창립기념예배·성탄모임



서울Y는 12월 8일 창립 101주년 기념예배와 찬양집회를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사·위원·실무자 약 160명이 참석했다.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13절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위임)가 전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영적 위협을 경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목사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배부름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영성을 가진 서울Y가 한국 사회에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알리는 기관으로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축원했다. 이날 모인 헌금은 UN난민기구를 통해 리비아 홍수 피해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념예배 이후에는 ‘히스윌 His Will 김동욱과 함께하는 찬양집회’가 이어졌다. 김 찬양사역자는 광야를 지나던 시절,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며 길을 만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결눈질’을 비롯해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없이는’ 등의 대표곡으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창립 101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은 ‘제로웨이스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우유갑, 페트병, 컵홀더 등을 재활용해 만든 오너먼트로 트리를 장식하고, 종이가방을 잘라 만든 카드에 메시지를 직접 적으며 생명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강남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발표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12월 16일 강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2개의 정책제안과 3개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사항 의견을 제안했으며, 우수활동위원을 표창하고 활동 소감을 공유하는 등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강남구 내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증진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영등포

워킹우먼데이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23일 '2023 워킹우먼데이'를 열고 2023년 한 해 동안 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을 축하했다. 총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MBTI 세련된 소통법'을 주제로 특강을 들으며 공감과 격려를 나눴다.



봉천

감사송년행사 '별이 빛나는 밤에'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3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송년행사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복지관 강당에서 열었다.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사업 보고 영상 시청과 저녁 식사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우수후원자,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단체 등 총 6명(팀)의 수상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누리봄

성과공유회

누리봄은 12월 5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된 '가정폭력 피해자의 역량강화 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여했다. 2022-2023년 2년간의 사업 수행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공동작업장 '봄봄' 생산품을 판매·홍보하며 활로를 넓혔다.



노원

'이모티콘 캐릭터 공모전' 시상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10일 이모티콘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력이음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원새일센터 이모티콘·캐릭터를 제작해 사업 홍보와 온라인 상담에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완성된 이모티콘을 통해 20-40대 초기경력단절여성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자는 총 7명이며, 입상 캐릭터들은 노원센터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서울Y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로컬푸드직매장과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업’을 진행했다. 무포장 판매, 비품·잉여농산물 활용, 장바구니 캠페인을 통해 총 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판매자, 소비자 대상 제로웨이스트 교육을 펼치며 일회용품 줄이기 필요성을 알리고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 증대와 동시에 가치소비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대전Y, 전주Y, 광주Y, 진주Y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로컬푸드마켓’을 열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무포장으로 판매해 지역 농가도 살리고 지역주민과 회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장바구니 모아모아’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장바구니를 각 지역Y 회원들에게 기증받아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총 3,454개의 장바구니를 재사용했다. 농산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비평적 관점으로 미디어 읽기

서울Y는 12월 4일에서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위근우 작가와 함께하는 <비평적 관점으로 미디어 읽기>를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다.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화용론적 비평 방법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재현 다양성과 콘텐츠의 영역’을 주제로, 성평등적 관점의 미디어 비평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작품의 세계관이 차별을 드러낼 때

- 작가는 단순한 열악한 환경에 익숙한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묘사했을 수 있음
- 또 이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선입관이기도 함
-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묘사할 때 드러나는 사회적 선입관은 특별한 약의 없는 차별적 관점과 그것이 가능한 자국민의 권력적 위치를 드러냄

다. 최근 이슈가 된 드라마·웹툰·게임 등의 콘텐츠를 예로 들며, 단순히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신년예배



2024년을 열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일시** 2024년 1월 2일(화) 10:30
- **장소** 대강당
- **말씀** 장윤재 목사(서울Y 고문 · 이화여대 교목)
- **문의** 02-3705-6001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월 11일(목) 2월 21일(수) 10:00	1만원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10:00	2만원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1월 25일(목) 2월 22일(목) 10: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신규프로그램 안내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일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	1월 22일(월)-2월 27일(화) 월·화 9:00-13:00
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	1월 24일(수)-2월 22일(목) 수·목 9:00-13:00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취득	1월 22일(월)-2월 26일(금) 월·수 9:00-13:00

영등포

•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취득 (140시간 이상 과정)	1월 8일(월)-3월 29일(금) 월~목 9:30-13: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월 15일(월)-2월 2일(금) 월~금 14:00-18:00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가 2024년 1월 25일(목)에 열립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1월 25일(목) 14:00
- **문의** 02-3705-6001, 6017

CALENDAR


2024 **1**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신년예배 10:30 
 3
 4 위원회
 재정부 11:00
 5
 6

8 ·역대이사 모임 11:00
 9 이사회 10:00
 10
 11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12
 13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5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6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7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18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여성참여팀 11:00
 19 위원회
 강남Y 11:00
 ·HERizon: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오프닝
 세레모니 15:0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22 위원회
 봉천Y 11:00
 ·HERizon: 2회차
 강연 시작(~2월 5일/
 지역별 실시)
 23
 24
 25 정기총회 
 14: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26
 27

29
 30 위원회
 인사 10:30
 임원 12:00
 31

CALENDAR

2024 **2**

일	화	수	목	금	토
			1	2	3
5	6 위원회 재정부 11:00	7	8	9 · 누리봄 홈커밍데이 (~11일)	10 설날
12	13 이사회 10:00	14 · HERizon: 3회차 강연 (28일)	15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여성참여팀 11:00	16 위원회 강남Y 11:00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돌봄회원 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10: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9 위원회 봉천Y 11:00 평생체육팀 11:00 · 역대이사 모임 11:00	20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1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2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23	24
26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29		

냉소의 시대

지금, 대학에는 '언니들'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엄청난 대의나 뜻을 가지고 시작했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삶의 부조리함을 나만의 언어로, 나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의제가 가장 나의 삶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학교생활과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우리의 활동은 주로 온라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중심이 된 의견들은 페미니즘과 인권, 평등과 관련한 주제들에 적대적인 입장이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의견들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백래시가 가해진 것도 이쯤부터였다. 내가 활동하는 기구가 단순히 페미니스트 교수와 연대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공격을 받고, 그것을 이유로 기구가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단순히 '에브리타임' 의견만으로 성평등 기구가 폐지되거나 학내에서 활동하는 여학생들에 대한 공격들이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 시기를 거치며 많은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과 여학생들은 번아웃과 소진 상태에 놓이게 됐다.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더 이상 활동이 부딪하거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될 때

쯤, 지금이 쉬어야 하는 때임을 알게 되었고 휴학 신청을 했다. 휴학하고 나서는 대학 바깥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중 대부분은 이미 대학을 한참 전에 졸업한 선배 활동가들이었다.
 현재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상태와 현재 대학 환경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 정도라고?'라며 놀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 서로의 상황을 왜 이토록 몰랐을까. 대학에 더 많은 선배 페미니스트들과 '언니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내가 혼자라는 감각', 즉 고립감을 느끼기 너무 쉬운 퇴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연결되지 않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이 부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활동하는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해.”
 한 선배 활동가 언니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나는 그만 눈물이 났다. 모두가 '네가 그러다고 바뀌지 않아'라고 말하는 냉소의 시대에서, 활동하고자 마음먹은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우리 함께 사회를 바꾸어보자'라며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킬 방법일 것이다. ♪
 글_잎새(활동명)

공동기도문 집필 감사합니다

2024년 공동기도문은 백소영 교수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님이 집필해 주십니다

회원 소식

이복희 소비자환경위원회 위원장

아들 이의곤 씨

12월 2일(토) 낮 1:00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결혼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강습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창시한 프로그램으로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문의** 02-3705-6030

서울Y 회원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극단 축

창의적인 여가 문화생활 영위와 연극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는
극단 축에 서울Y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신청 대상** 연극에 뜻이 있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경규선 단장 010-8909-2901

▣▣▣ YWCA 합창단

아름다운 노래와 성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 깊은 YWCA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보세요

-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신청 대상** 노래와 합창을 사랑하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김희순 단장 010-3687-9647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북멘토링 프로젝트'의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2023년 11월

특별 후원



- **큰장날 후원** 박위자 이명순 최한나
 명예위원회 역대이사모임
 재정위원회 (사)한국YWCA연합회
 (주)에스리테일홈쇼핑 제이앤비

복멘토링 후원



- | | | | | | | |
|-----|------|------|-----|-----|-----|-----|
| 구영숙 | 김민아 | 김상희 | 김선자 | 김성연 | 김정숙 | 김지영 |
| 김진숙 | 김한나 | 김혜경 | 박나영 | 박미소 | 박소현 | 박용천 |
| 박진선 | 박채원 | 배은경 | 손예림 | 손지용 | 송태연 | 신여명 |
| 신정숙 | 심영자 | 양진화 | 엄현경 | 예정원 | 우영숙 | 유지현 |
| 이연배 | 이윤선 | 이푸른하 | 이현미 | 이희정 | 임재연 | 정나미 |
| 정모아 | 조민형 | 최동수 | 최 봄 | 최정우 | 최한나 | 최혜영 |
| 한혜영 | 월요까페 | | | | | |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2023년 11·12월 회보 '영화와 삶' 칼럼 기고

월 CMS 후원



일반 후원



- | | | | | | | |
|------|------------|-----|-----|-----|-----|-----|
| 강명희 | 강서현 | 고려옥 | 고선혜 | 곽민규 | 구영숙 | 권혜진 |
| 기영숙 | 김미자 | 김병호 | 김선자 | 김소희 | 김숙희 | 김옥매 |
| 김윤희 | 김인복 | 김정순 | 김주숙 | 김해정 | 김현경 | 김 형 |
| 만혜경 | 박숙자 | 박위자 | 박정희 | 박제희 | 박진선 | 박혜리 |
| 배은경 | 배정미 | 서해영 | 석성옥 | 송순옥 | 심영자 | 양수경 |
| 엄현경 | 오준호 | 우정현 | 우주훈 | 우훈희 | 유광주 | 육순연 |
| 윤혜선 | 이애진 | 이유리 | 이유림 | 이윤선 | 이은숙 | 이종미 |
| 이행자 | 이홍자 | 임중현 | 장민경 | 장수자 | 정문옥 | 정석용 |
| 정수경 | 정승원 | 정은숙 | 조순영 | 조연신 | 조종남 | 지복임 |
| 채서은 | 채재호 | 최경자 | 최 봄 | 최혜란 | 하태진 | 한정신 |
| 홍근표 | 월요까페 | | | | | |
| 주식회사 |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 | | | | |

- | | | | | | | |
|-----|-----|-----|-----|-----|-----|-----|
| 감윤우 | 감윤익 | 강경아 | 강경희 | 강금미 | 강남이 | 강동우 |
| 강명숙 | 강문숙 | 강미영 | 강민아 | 강선경 | 강수미 | 강신범 |
| 강신봉 | 강영숙 | 강영임 | 강유민 | 강윤정 | 강은영 | 강일훈 |
| 강주현 | 강창석 | 강하자 | 강형식 | 경규연 | 계숙화 | 고경혜 |
| 고광표 | 고동연 | 고선자 | 고선혜 | 고선환 | 고성희 | 고은경 |
| 고은비 | 고은정 | 고은화 | 고은희 | 고인미 | 고재옥 | 고흥애 |
| 공명주 | 공민희 | 공우재 | 곽동윤 | 곽미숙 | 곽민정 | 곽지영 |
| 구다은 | 구미영 | 구수영 | 구오영 | 구지영 | 권경자 | 권규상 |
| 권기웅 | 권내영 | 권범찬 | 권부남 | 권성준 | 권순철 | 권예현 |
| 권우경 | 권은희 | 권정연 | 권정희 | 권태진 | 권혁준 | 권현준 |
| 권형하 | 권혜진 | 권희원 | 권희정 | 길명경 | 길소연 | 길인숙 |
| 길종선 | 김경미 | 김경미 | 김경배 | 김경삼 | 김경선 | 김경아 |
| 김경옥 | 김경원 | 김경일 | 김경화 | 김경훈 | 김경희 | 김관옥 |
| 김관채 | 김광수 | 김귀숙 | 김규진 | 김금자 | 김기연 | 김기호 |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박상건	박상수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소윤	박소현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두희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김명수	김명후	김문자	김문휘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박영순	박외정	박웅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솔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기	김민성	김민숙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지영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김선희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한철	박 현	박현숙
김성희	김세진	김소망	김소은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박현숙	박혜리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김순임	김순자	김순자	김승재	김시은	김애숙	김양미	배영우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김양선	김양숙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백명숙	백성원	백옥선	백은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백 준	백지우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봉진영	서근배	서락원	서미화	서빛나	서영미	서예석
김우인	김원경	김원경	김유성	김유진	김윤나	김윤종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석	김인하	성지윤	성지윤B	성진원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지용
김일희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김재진	김재현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언	송하윤	송혜승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석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신지혜	신찬용	신총섭	신현미	신혜경	심경호	심재원
김지은	김지혜	김지호	김지희	김지희	김 진	김진서	심정자	심주리	심혜영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김진숙	김진숙B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안승계	안영신	안영운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치백	김태경	김태식	안정국	안정희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한나	김해정	안혜리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종숙
김행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양진영	양현옥	엄수길	여명진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명화	오미영	오성아
김현진	김형모	김형빈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오소연	오연아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김혜경	김혜성	김혜실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온기석	왕정한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김화숙	김효숙	김효은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원혜숙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정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노미선	노승은	노인화	노일권	노정자	노혜환	동지현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유주빈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문미현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윤미경	윤미소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문혜경	민경솔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박노영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영	박미용	박병주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이교신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현	이기화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연수	정연우	정영룡	정영희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동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정예슬	정우연	정원화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이동헌	이명순	이명우	이명혜	이미숙	이미진	이민석	정재훈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해윤
이봉희	이상명	이상옥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선미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혜진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정화자	제오복	조계연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익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이수진	이순영	이순옥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조성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영미	이영미	조원식	조윤신	조윤영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은	조정훈	조준하	조종희	조진영	조진희	조형윤	조혜성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조혜진	조홍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우철	주형로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선	지경표	지미화	지영	지영찬	지인	진연선	차경희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최기은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영	최민호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응열	이재건	이재경	이재연	최 불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선미	최성현	최순자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최순태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신지	최영실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최윤주	최유휘	최유훈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은	최지희
이준혜	이중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채진	이택완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한다정	한명희	한민희	한성우	한숙명	한숙희	한승연
이현국	이현순	이현심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미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운순	한윤경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이희남	한이수	한인선	한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이희전	임경희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한진숙	한현식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임선미	임성준	임순화	임양수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임지은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혜연	임호환	임희진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황선미	황순분	황어진	황영신	황왕연	황용하	황윤희
장순복	장용익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황주혜	황지희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주)건축사사무소빅	(주)시공디자인	그린에이전시				
전영지	전윤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옥	전홍신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문옥	정미선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중앙이엔씨	콤마,와인				
정미성	정민선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파티인테이블	향기나무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문의 02-3705-604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일만에 속부터 꼭 차오르는 밀도 탄력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

일시 2024년 1월 25일(목) 14:00

장소 4층 대강당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가 2024년 1월 25일(목)에 열립니다.
제4회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사)서울YWCA 회장 조 연 신
사무총장 김 양 선

*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정회원 관련 문의 02-3705-6008

총회 순서

개회예배

총회사

시상 - 감사패 · 봉사상 · 근속상 · 회원증모상 · 이연배봉사상 · 정광모상

전회의록

2023년도 감사보고

안건심의

1호 의안 - 2023년도 결산보고

2호 의안 - 2023년도 사업보고

3호 의안 -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4호 의안 - 2024-2025 공천위원선출

5호 의안 - 정관 변경

6호 의안 - 총회 회의록 날인 이사 선출

폐회 예배

회가 제창

사단법인 서울YWCA 정관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6조 (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1. 목적사업</p> <p>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및 교육사업</p> <p>나.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사회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사업</p> <p>다.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자·환경사업</p> <p>라. 여성의 인권과 평등보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p> <p>마.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및 복지사업</p> <p>바.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청소년·시민운동</p> <p>사.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집 사업</p> <p><u>아. 회원YWCA 간의 협력과 자원의 교류</u></p> <p><u>자.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단체들과의 협력</u></p> <p>차.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p>	<p>제6조 (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1. 목적사업</p> <p>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및 교육사업</p> <p>나.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사업</p> <p>다.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자·환경사업</p> <p>라. 여성의 인권과 평등보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p> <p>마.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및 복지사업</p> <p>바.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청소년·시민운동</p> <p>사.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집 사업</p> <p><u>아. 회원YWCA 및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단체들과의 협력</u></p> <p>차.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p>	<p>공익법인 지정조건 충족을 위한 조항 변경</p>
<p>제6조 (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시설 및 사업의 운영</p> <p>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요양보호사교육원</p> <p>나. 청소년수련관, 다함께키움센터</p>	<p>제6조 (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시설 및 사업의 운영</p> <p>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요양보호사교육원</p> <p>나. 청소년수련관, 다함께키움센터</p> <p><u>다. 종합사회복지관,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u></p>	<p>제6조 제1호 마목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및 복지사업)을 근거로 복지관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 운영을 위한 조항 추가</p>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秀 수려한

蔘 진생
에센스^{AD}



조아라

민주화운동의 선구자
광주YWCA 명예회장 (1912-2003)

한평생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헌신하며
'광주의 어머니'라 불린 선생은 191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1923년 고향을 떠나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진학해
교사였던 김필레 선생과 만나며 YWCA와 인연을 맺게 된다.

여학교 시절, 광주독립학생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
1936년 수피아여학교가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거부하면서 폐교될 때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광복 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인회를 출범시켰고
광주Y와 수피아여학교 재건 등 민족정기 회복에 힘썼다.
1945년부터 2003년까지 광주Y 상무이사, 총무를 거쳐
명예회장을 지내며 평생을 YWCA 운동에 헌신했다.
전쟁고아를 위한 성빈여사, 불우소녀 가장을 위한 호남여숙을 세웠고
청소년 야학 별빛학원, 성매매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계명여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계엄군에 끌려가 옥고를 치르면서도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수습했다.
1992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 열린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토론회에 한국 여성계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광주Y가 2015년 설립한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유물과 각종 기록물들이 전시돼 선생이 생전에 실천한
사랑·정의·평화·봉사 정신을 전하고 있다.
소심당(素心堂)은 속옷을 기워 입을 정도로
검소했던 그에게 허백련 화백이
'티 없이 결백하다'는 뜻으로 지어준 호다.

마지막 간절한 소망은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남기고
2003년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조아라 선생.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 행렬은 국립 5·18 민주묘지로 향했다.
200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2018년 건국포상이 추서됐다.